주간통일정세 2010-07(2010.02.08~02.14)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0-07

Contents

>> Ⅰ.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Ⅰ.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관련

○ 北김정일 생일..식량난속 기념행사 '요란'(2/10, 연합뉴스)

- 김정일 위원장의 68회 생일(2.16)을 맞아 북한 곳곳에서 청소년, 학생 '충성맹세 모임', 업적 연구토론회, 우상화 영화상영, 체육대회 등 각종 기념행사 진행
- 북한 언론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올해 관련 행사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
- 생일 전날인 15일 중앙보고대회를 비롯, 제14차 김정일화(花) 축전, 경축무도회, 음악무용종합공연, 제19차 백두산상 국제휘거(피겨)축전(15~17일), 수중발레(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시범경기 등 진행
- 노동신문은 설 당일인 14일 김 위원장 생일 관련 글들을 게재, 생일 행사들인 '김일성화, 김정일화' 전시 현황과 백두산 인근 삼지연에서 열리고 있는 '2.16경축 얼음조각 축전'을 크게 소개(얼음축전은 이번이 처음)

○ 北 원산시 야경 띄우기..'김정은 업적'(?)(2/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설을 맞아 "원산시에 황홀한 불야성이 펼쳐졌다"며 "평양의 하늘가에 터져올랐던 축포의 불꽃(축포야회)이 고스란히 내려앉은듯하고, 전설의 신비경 같다"고 자랑
- 작년 12월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해 북한 언론은 지난 한해를 "변이난 해"로 주장하면서 그 성과의 하나로 '원산의 불야성'과 평양의 축포야회를 꼽고 이를 북한의 '밝은 미래'와 연결시키고 있음.
- 원산시 야경 공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작년 경제부문 첫 공개활동으로 원산청년발전소를 현지지도하면서 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으로 야경을 새롭게 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1, 2단계로 나눠 진행돼 작년 말 모두 끝냄.
- 원산시내 불장식(네온사인)을 띄우는 배경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은이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옴.

■ **김정일동향**

– 2/ 5, 北–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체결 10돌 즈음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에서 가극 '예브게니 오네긴' 공연 관람(2/5, 중통)
· 김영춘(인민무력부장), 김정각(軍 총정치국 제1부국장), 최태복·김기남(黨 비서들), 김경희·장성택·김양건(黨 부장들), 강석주(외무성 제1부

상) 등 함께 공연 관람
- 2/ 8, 현대적으로 꾸려진 2.8비날론현합기업소 현지지도(2.8,중통)
  · 태종수(함경남도委 책임비서), 김경희·장성택(黨 부장들), 주규창·이제강·이재일·전일춘(제1부부장들) 동행
- 2/ 8, 왕가서 中 공산당 대외연락부 대표단 접견 및 만찬(2.9,중통·중방)
  · 김영일·김양건(黨 부장), 류효명(駐北 中 대사) 참석
- 2/ 9, 2.8비날론연합기업소 再次 방문 및 최상의 「특별감사」전달(2.9, 중통)
  · 김영일(내각 총리), 태종수(咸南道黨 책임비서), 김경희·장성택(黨부장) 등 黨책임간부들 동행
- 2/15, 은하수관현악단의 설명절음악회를 관람(2/15, 조선중앙방송)
  · 김영춘(인민무력부장), 김정각(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리영호(인민군 총참모장) 등 군관계자와 노동당 최태복-김기남(비서), 김경희(경공업부장), 장성택(행정부장), 김영일(국제부장), 김양건(통일전선부장), 강석주(외무성 제1부상) 등이 동행

나. 경제 관련

○ 김일성의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 창조 5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2/8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태복 노동당 비서 겸 최고인민회의 의장 등 당, 정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다고 보도
-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이란 1960년 김 주석이 당시 평안남도 강서군 청산리를 현지지도하면서 만들었다는 북한식 대중지도 방식임.

○ 中, 나진항 진출.. "내친김에 평양까지"(2/12, 연합뉴스)
- 동해 진출을 위해 북한 나진항을 거점항구로 개발키로 한 중국이 옌볜(延邊)-평양 간 관광루트 개설에도 의욕을 보임.
- 옌볜조선족자치주는 훈춘에서 북한 나진과 평양, 판문점에 이르는 새로운 관광코스를 개발키로 했다고 12일 밝힘.

○ 北 장성택, 화폐개혁 혼란 수습 주도(2/12,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 "1월말께 장성택 행정부장의 주재 하에 경제 전문가 수십명이 강원도 원산시 모처에 모여 며칠간 회의를 했다"며 "화폐개혁 이후 민심이반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식해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경제를 살리는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보도하며,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화폐개혁 이후 사회.경제적 혼란을 수습하는 주역을 맡고 있다고 밝힘.
- 회의에는 평양 인민경제대학과 강원도 원산경제대학 등의 박사급 경제전문가들과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지배인,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지배인 등 경제실무 전문가 수십명이 참가했다고 한다"면서 "회의 직

후 경제 전문가들로 '긴급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안다"고 전함.
- 경제정책의 방향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처럼 시장방식이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원칙의 틀 안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발전을 모도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말함.

■ 기타동향 (대내 경제)

- 개성도시건설사업소 등 개성시내 일꾼-근로자들이 32종 3만1,000여 점의 중소농기구들을 농촌에 지원하는 등 농촌지원사업 성과 보도(2/8, 조선중앙통신)
- 지영일(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 교수의 기고문을 통해 北은 △라선시의 특별시 지정 △국가개발은행 설립 △유럽위원회의 1,100만 유로 규모 對北투자계획 △프랑스특사 방북 △北-美 과학관여연합 대표단 방북 등 "인민생활향상 뿐 아니라 대외경제사업도 중요시하고 있다"는 내용 揭載(2/10, 조선신보)
- 김정일의 혁명사적표식비 '길이 빛나라 불멸의 영도자욱이여' 준공식(2.11)
  - 백제룡(江原道黨 책임비서) 등 참가下원산청년발전소에서 진행(2/12, 조선중앙통신)
- 평안북도 간석지건설사업소 일꾼들, 2.11 대계도간석지 건설장에서 10만 산 대발파 진행(2/12, 조선중앙통신)
- 농업기계화연구소 과학자들, '벼수직파기계'(정보당 벼 수확고 20% 향상, 1일 2~3정보 파종 가능) 연구 도입 보도(2/11, 조선중앙통신)
- 北 올 식량 넉달치(129만톤) 부족…(2/10, 동아일보)
  - 정부, 작년 411만톤 생산 추정, 올해 수요 540만톤에 턱없이 北측선 501만톤 생산 주장
- 김영일 내각총리 화폐개혁 혼란 사과, 좋은벗들(2/10, 동아일보)
- 화폐개혁 이후 신권가치 두 달 새 1/10로 떨어져, 요미우리신문(2/10, 세계일보)
- 北, 무역회사에 식량수입 독려, 좋은벗들(2/10, 세계일보)
- 김정일 화폐개혁 실패 인정…민심잡기 나서, 열린북한방송(2/12, 동아일보)
  - "화폐개혁후 인민생활 처참" 책임비서 최룡해 직언 수용/김영일 총리, 인민반장 소집, 부작용 사과, 후속조치 당부
- 北.中, 6자.외자유치 '투트랙' 접근(2/14, 연합뉴스)
  - 北조선대풍투자그룹 움직임 주목
  - 北, 中 대북투자 유치..中, 北 6자회담 복귀 유도

다. 군사 관련

○ 北 김정일, 군사력만이 인민생활 담보(2/12, 노동신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초 남한 공격상황을 상정한 '근위서울류경수제105탱크사단'의 가상훈련을 참관하면서, 막강한 군사력을 담보로 경제강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북한 언론이 12일

보도

- 노동신문은 '백두산총대바람으로 10월의 승리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위원장이 당시 "적들이 우리를 어째보려고 기회를 노리는 조건에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경제강국을 건설하자고 해도 막강한 군사력의 담보가 있어야 한다"며 "선군의 위력으로 대고조를 일으키자는 것이 나의 의도"라고 말했다고 보도
- "경공업과 농업 활성화의 열쇠도, 인민생활 향상의 근본원천도 선군에 있고, 총대에서 쌀도 전기도 천도 기계도 쏟아져 나온다고 우리는 주저없이 선언한다"고 강변

라. 사회·문화 관련

○ 탈북 난민 美입국 4개월째 전무(2/10, 미국의 소리(VOA))

- 미국 정부의 '2010 회계연도'가 시작된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이 한 명도 없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10일 보도
- 미국 국무부의 난민 입국현황 보고서를 인용, "미국 정부가 지난해 9월 태국에서 탈북자 1명을 수용한 이후 탈북자 입국이 넉 달째 전무한데 이런 현상은 2007년 9월 이후 처음"이라고 밝힘.

■ **기타동향 (대내 사회·문화)**

- 北유별미(8)양이 제56회 슈만 국제청소년 피아노 콩쿠르에서 조 1등상과 특별상을 받았다고 보도(2/9, 조선중앙TV)
- 北 중앙식물원 국제친선식물관, 겨울베고니아와 엽자화품종의 식물 등 외국에서 보내온 선물식물 성과적으로 栽培(2/10, 조선중앙통신)
- 北 고고학자들, 평양시 승호구역 리천리 일대에서 단군시기 집자리유적(남북길이 10.6~10.8m, 동서넓이 6.15~6.3m, 단검·창끝·도끼 등 발굴) 새로 발굴(2/10, 조선중앙통신)
- 北, 외국인 관광 두달만에 허용, RFA(2/10, 국민일보)
  - 북한관광 전문인 중국 고려여행사의 사이먼 카커럴 대표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 관광객들과 함께 주말인 오는 13일 중국을 거쳐 북한을 방문해 평양과 개성, 묘향산 등을 여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탈북여성, 100만원에 인신매매, 북·중 국경경비원 중개, 아시히신문(2/12, 국민일보)
- 北선수단 입촌식 돌연 취소(2/12, 서울신문)

마. 6자회담(북핵문제) 관련

○ 中 왕자루이, 北 최태복과 회담(2/8, 조선중앙통신)

-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겸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왕 부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대표단과 회담했다고 영문기사로 짧게

보도
- 왕자루이 부장은 "김정일의 영도밑에 조선인민이 여러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강조
-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의사 표명
- 이와 관련 최태복 비서는 "양국각 전통적 우의는 고귀한 자산"이라면서 "올해 중국에서 개최되는 엑스포와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언급(2/8, 신화통신)

○ 中 왕자루이, 삼지연악단 공연 관람, 만수대거리 살림집 참관(2/8, 조선중앙TV; 평양방송)
- 북한을 방문 중인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7일 동평양대극장에서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
- 작년 말 완공돼 입사를 마친 '북한판 뉴타운'인 만수대거리 살림집과 대동강과수종합농장, 만경대혁명학원 참관을 평양방송이 보도

○ 北 김정일, 왕자루이 면담(2/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8일 저녁 방북중인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면담하고 만찬도 함께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새벽 보도
- 왕 부장은 김 위원장에게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구두친서'와 대표단이 준비해온 선물을 전달했으며, 김 위원장은 이에 사의를 표시하고 후 주석에게 보내는 인사를 전한 뒤 왕 부장과 "친선적인 담화를 했다"고 통신은 소개했으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밝히지 않음.
- 김영일 당 국제부장과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류사오밍(劉曉明) 주북 중국 대사가 배석했으나 북핵문제와 대미외교를 총괄하는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은 배석하지 않음.
- 왕 부장은 9일 오전 역시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 서우두 공항을 통해 귀환

○ 북-중 회담 사흘째..실무협의한 듯(2/11,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은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방중 사흘째인 11일에도 6자회담 재개방안을 논의하는 회담을 이어감.
-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현재 베이징에 머무르고 있다"며 "김 부상은 중국 정부의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했다"고 확인, 이어 "우 특별대표와 김 부상이 이미 회담을 열어 북중 관계와 북핵 6자회담 및 공통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함.

■ 기타동향 (6자회담(북핵문제))

- 중국 왕자루이 방북 관련 보도기사
  - 北, '외교 이벤트' 공세, 경제 상황 급박한 듯(2/8, 동아일보)
  - 北, 中보따리 보고 큰 거래 시도할 듯(2/8, 국민일보)
  - 왕자루이 이번에도 '6자' 해결사?(2/8, 세계일보) 위기때마나 中특사 방북 회담재개 이끌어, 일각선 양국 우호증진차원 방문 신중론도…
  - 왕자루이 만난 김정일, '후진타오 구두친서' 받아(2/9, 국민일보) 北 6자회담 복귀·中 경제지원 논의한 듯, "친선적인 담화"…6자 복귀 시기 전닥설도
  - 왕자루이, 최태복 북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최고인민회의 의장)와 회담(2.9, 경향신문)
- 중국이 10일 북핵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63) 전 외교부 부부장을 한반도 특별대표에 임명(2/10, 연합뉴스)
- 방중 김계관-우다웨이(한반도 특별대표) '6자회담 재개 전제조건' 논의(2/10, 동아일보)
- 중·북·유엔 긴박한 특사외교…접점찾기 빨라진다(2/10, 국민일보)
  - 왕자루이, 의장국 체면 세우려 북설득 팔걷어/김계관, 실무자와 전격 방중 본격협의 암시/파스코, 3박4일 평양 머물며 현안 집중논의

2. 대외정세

○ 발레리 수히닌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조.(북)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 체결 10주년을 맞아 연회 마련(2/8, 조선중앙방송)

-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궁석웅 외무성 부상, 오룡철 무역성 부상, 홍선옥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연회에 초청(함경북도 청진 주재 러시아 총영사관)
- 北 중앙신문들, 개인필명의 글들을 통해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체결」10돌 즈음 "兩國 친선관계를 더욱 공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은 정부와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이고 입장"이라고 강조(2/9, 조선중앙통신)

[유엔 특사 방북 관련 보도]

○ 北방송, 유엔사무총장 특사 평양 도착 보도(2/9, 평양방송)

- 유엔 사무총장의 대북특사인 린 파스코 유엔 사무국 정무담당 사무차장과 그 일행이 9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 평양방송이 이날 오후 보도
-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꾼과 주조(주북) 유엔상주조정자 겸 유엔개발계획 상주대표가 사무차장 일행을 맞이했다"고만 보도

○ 北 외무상, 유엔 사무총장 특사 만나(2/10, 조선중앙통신)
- 박의춘 외무상이 10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방북 중인 유엔 사무총장 특사인 린 파스코 유엔 사무국 정무담당 사무차장 일행을 만나 담화했다고 보도

○ 방북 유엔 대북특사, 김영남 면담(2/11,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유엔 사무총장 특사인 린 파스코 유엔 사무국 정무담당 사무차장 일행을 만나 담화했다고 보도
- 통신은 또 별도 기사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유엔 사무총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구두친서와 선물을 보내왔다며 파스코 특사가 이를 김영남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힘.
- 박길연 외무성 부상과 제롬 소바주 유엔상주조정자 겸 유엔개발계획(UNDP) 상주대표가 배석
- 파스코 특사 일행은 이날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과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등을 참관했으며 국립교향악단의 공연을 관람

○ 유엔 특사, "北, 6자회담 복귀 준비안됐다"(2/11, 연합뉴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북특사인 린 파스코 유엔 사무국 정무담당 사무차장은 12일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 "북한측은 대북제재 등의 조건 때문에 6자회담에 돌아올 준비가 안됐다고 말했다"고 전함.
- 방북결과 설명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6자회담이 전제조건없이 열려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고 말함.
- 북한측 인사는 모두 유엔의 대북제재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유엔 안보리를 포함해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두 북한이 조건없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라는 점을 북측에 전했다"고 밝힘.
- 파스코 특사는 이날 오후 평양 순안공항에서 3박4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베이징으로 출발하기 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평양발로 보도

○ 中 조직부장, 북중관계 발전은 전략적 방침(2/13, 조선중앙통신)
- 중국 리위안차오(李源朝) 정치국 위원 겸 공산당 중앙조직부장이 북중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고 밝힘.
- 리 부장은 11일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열린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 기념 경축연회에 참석해 "조선(북) 동지들과 함께 각 분야의 협조와 교류를 확대, 심화시키고 전통적인 중.조친선에 끊임없이 생기

와 활력을 불어넣어 친선협조관계의 보다 아름다운 앞날을 창조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

○ 北 김계관, 中과 비핵화 촉진방안 논의(2/13,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13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중국을 방문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힘.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김계관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우다웨이 (武大偉) 중국 정부 조선반도문제 특별대표의 초청으로 9일부터 13일까지 중국을 방문했다"고 소개
- 그는 "방문 기간 쌍방 사이에 조(북).중관계와 평화협정 체결, 제재 해제, 6자회담 재개 등 신뢰를 조성해 조선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문제들이 심도있게 토의됐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논의내용은 언급하지 않음.
- 김계관 외무성 부장은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 영어동시통역사인 최선희씨 등과 함께 9일부터 4박5일간 머물며 중국 정부의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로 임명된 우다웨이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와 릴레이 회담을 가짐.

■ 기타동향 (대외동향)

- 「제14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 1.31~2.2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진행(2/5, 평양방송)
- 駐적도기네 北대사 김춘봉, 2.1 駐在國 정부수상 의례 방문(2/5, 조선중앙통신)
- 재중조선인청년연합회, 2.2 '2.16경축 김정일화전시회' 中國 심양에서 개최(2/6, 조선중앙통신)
- 駐나이지리아 대사에 정학세 임명, 최고인민회의 상임委 정령(2/6, 평양방송)
- 中 외교부, 새해 즈음 自國駐在 北 대사관 성원들과 친선모임 진행(2/7, 조선중앙통신)
- 미국의 대만에 대한 64억 달러 규모의 무기판매 결정으로 미·중 사이 군비경쟁과 정치군사적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고 외신보도 인용 보도(2/8, 조선중앙통신)
- 泰, 北무기 운송 승무원들 불기소 결정(2/11, 연합뉴스)
  · 승무원은 본국 송환, 무기는 계속 압류
- 美 "현 시점서 김계관 방미논의 없다",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2/13, 연합뉴스)
- 담배밀수' 北외교관 항소심서도 유죄, 자유아시아방송(2/13, 연합뉴스)
- 北, "발굴유해 가져가라"..美에 제의(2/14, 연합뉴스)
- 北 관리, 러시아에 망명 요청, 교도통신(2/15, 연합뉴스)
  ·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우수리스크 지역을 통해 밀입국했다 붙잡힌 북한 관리(남. 40, 과거 북한 내 산업 관련 기관에서 근무)가 최근 러시아 정부와 유엔난민 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망명을 요청

3. 대남정세

○ 北 "체제전복 책동 강력조치할 것", 인민보안성·국가안전보위부 '연합성명' 발표(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는 8일 '연합성명'을 발표,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 체제 전복 시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어 수수방관할 수 없다"며 "온갖 적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사회주의 제도와 나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혁명강군의 총대는 물론 인민보안 및 안전보위군의 모든 역량과 수단이 총동원될 것"이라고 밝힘.
- 양대 공안기관인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의 연합성명을 낸 것은 처음
- 남측의 체제전복 시도 사례로 "서해'북방한계선'고수를 노리는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의 모험적인 군사적 준동", "전연(전방)과 해안, 국경지역을 통해 감행하고 있는 분별없는 '대북내부교란' 작전", "반공화국 삐라 살포 행위가 전방에서 종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온갖 정탐역량과 수단이 투입된 체제전복 책동이 우리나라 주변으로부터 내륙지대 깊이까지 뻗치고 있는 것"을 꼽음.

○ 北방송, 남 무성의로 금강산 실무회담 결렬(2/8, 조선중앙방송)

- 개성에서 열린 개성-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간 실무회담이 "남측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아무런 합의도 이룩하지 못했다"고 비난
- 북측이 개성관광과 금강산관광을 각각 3월1일과 4월1일 재개하자는 합의서 초안을 제시했지만 "남측이 그 무슨 3대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개할 수 없다고 하는가 하면 그 무슨 묵념을 하는 추태를 부리는 등 매우 오만무례하게 놀아대며 문제토의에 고의로 복잡성을 조성했다"고 주장
- 방송 말미에 남북이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 문제를 앞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임.

○ 北주간지, 개성공단 임대료 인상 요구(2/14, 통일신보)

- 북한 주간지 통일신보는 개성공단 토지임대료가 "1㎡에 4달러도 안되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어서 인상해야 한다"며 "남측이 북남관계를 새롭게 계산하자고 하는 조건에서 개성공단도 응당 '새판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보도
- 통일신보는 13일 "토지를 50년간 임대해주면서도 임대료가 이렇게 저렴한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해외 경제특구들에 대한 (남북)공동참관을 통해 확인됐다"면서 "남측이 토지임대차계약의 완료를 운운하지만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50년으로 여전히 유효하며, 만약 남측 주장대로라면 남조선의 토지공사는 토지임대차계약의 완료

에 따라 개성공단 개발업자의 지위를 내놓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함.

■ 기타동향 (대남)

- 남북 오늘 '정부 대 정부' 금강산 회담(2/8, 중앙일보)
  - 현정부 들어 처음…통일부·아태, 관광 중단 19개월 만에 재개 논의
- 금강산 관광 재개 합의 실패(2/9, 경향신문)
  - '3대 선결조건' 이견 못좁혀…북 일정제시 적극, 남 사실상 거부

북한연구센터 제공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유엔 특사 "北, 6자회담 복귀 준비안됐다"(종합)(2/13)

- 반기문(潘基文) 유엔 사무총장의 대북특사인 린 파스코 유엔 사무국 정무담당 사무차장은 12일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 "북한 측은 대북제재 등의 조건 때문에 6자회담에 돌아올 준비가 안됐다고 말했다"고 전했음. 그는 "우리가 만난 북한 측 인사는 모두 유엔의 대북제재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6자회담 복귀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6자회담 복귀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도 않았다"고 말했음.
- 파스코 특사는 "북한에서 만난 인사들은 제재에 반대했고 제재의 조속한 해제를 모두 희망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음. 그는 "반기문 사무총장의 특사로서 6자회담이 전제조건 없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북한의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음. 지난 9일 방북한 파스코 특사는 10일 박의춘 북한 외무상을 면담했으며, 11일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동했음.
- 파스코 특사는 12일까지의 방북 기간 "북측 고위인사들과 매우 솔직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북핵 문제와 6자회담 재개문제, 북한과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포함한 유엔과의 협력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면서 회담이 매우 유용했다고 평가했음. 그는 "북한이 이웃국가들, 특히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큰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음.
- 파스코 특사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 규모의 4분의 1 정도밖에 지원을 못받고 있으며 그마저도 원조규모가 줄어들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원조규모가 줄어드는 것이 북한의 물자부족의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음. 그는 구체적으로 "어린이들이 영양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파스코 특사 일행은 이날 3박4일 일정을 마치고 12일 오후 6시께 중국국제항공(CA) 편으로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했음. 파스코 특사는 평양 순안공항에서 신화통신 기자와 만나 "북한과의 회담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평가한 바 있음. 이번 방북에 파스코 특사 외에 외교통상부 출신인 김원수 유엔 사무총장 비서실 차

장과 유엔 사무국 실무직원 2명이 동행했음.

유엔 특사 "北, 남북관계 개선 원해"(종합)(2/13)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특사로 9~12일 방북한 린 파스코 유엔 사무국 정무담당 사무차장은 13일 "북한은 한국과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음. 파스코 특사는 이날 방북일정을 마치고 중국 베이징(北京)을 거쳐 인천공항 통해 입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음. 그는 이어 "북측이 구체적으로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음.
- 반기문 총장의 방북 계획에 언급, 파스코 특사는 "유엔이 북한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유엔-북한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이슈에 걸쳐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현재로서는 반 총장의 방북 계획은 없다"고 말했음. 파스코 특사는 이번 방북에 대해 "유익했다"고 평가한 뒤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즉시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북측에 촉구했다"고 말했음. 그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며칠간 베이징에서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논의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본인은) 어젯밤 중국측 인사들과 좋은 협의를 했다"면서 "6자회담이 당장 시작돼야 한다는 게 유엔의 입장"이라고 덧붙였음.

유엔 대북특사 "北과 회담에 매우 만족"(2/12)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북특사인 린 파스코 유엔 사무국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12일 "북한과의 회담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평가했음. 파스코 특사는 이날 오후 평양 순안공항에서 3박4일간의 방북일정을 마치고 베이징으로 출발하기 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평양발로 보도했음. 파스코 특사는 12일까지의 방북 기간 북측 고위인사들과 북핵 문제와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음. 파스코 특사의 방북에는 외교통상부 출신인 김원수 유엔 사무총장 비서실 차장과 유엔 사무국 실무직원 2명이 동행했음. 파스코 특사는 이날 오후 6시께 중국국제항공(CA)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할 예정으로 중국 측과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한 뒤 13일 서울을 거쳐 14일 미국 뉴욕으로 돌아갈 예정임.

中, 6자회담 조속 재개 촉구(2/11)

- 중국 정부는 11일 북핵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다시 한 번 촉구했음.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유관 당사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마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우다웨이(武大

偉) 전 외교부 부부장을 중국 정부의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로 임명한 것은 중국이 한반도 정세와 6자회담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증명한다"고 말했음. 마 대변인은 그러나 우다웨이 특별대표가 6자회담 의장직을 계속 수행할 것임을 시사하면서도 확답을 내놓지는 않았음. 그는 "우 특별대표는 6자회담 및 유관 업무를 주관한다"고 전제하면서도 "6자회담 의장은 6자회담 기간에 존재하는 직책이지 상설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6자회담이 재개되고 나서야 중국의 대표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다소 모호하게 대답했음. 마 대변인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현재 베이징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 특별대표와 김 부상이 이미 회담을 열어 북·중 관계와 북핵 6자회담 및 공통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음.

방북 유엔 대북특사, 김영남 면담(종합)(2/11)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유엔 사무총장 특사인 린 파스코 유엔 사무국 정무담당 사무차장 일행을 만나 담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했음. 통신은 또 별도 기사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유엔 사무총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구두친서와 선물을 보내왔다며 파스코 특사가 이를 김영남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음. 통신은 반 사무총장의 구두친서와 특사와 김 상임위원장 간 면담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음. 이날 회동에는 박길연 외무성 부상과 제롬 소바주 유엔상주조정자 겸 유엔개발계획(UNDP) 상주대표가 배석했음. 지난 9일 방북한 파스코 특사는 10일 박의춘 외무상을 면담했으며, 12일까지 방북 기간 북측 고위인사들과 만나 북핵 문제와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음.

中, 우다웨이 한반도 특별대표에 임명(종합)(2/10)

- 중국이 10일 북핵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63) 전 외교부 부부장을 한반도 특별대표에 임명했음.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우다웨이를 중국 정부의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로 임명, 6자회담 및 유관 업무를 주관하도록 했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우 전 부부장은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겸 6자회담 의장직을 계속 수행하게 됐음. 중국 정부는 외교부 소관사항인 6자회담 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특별대표란 직책을 우 전 부부장에게 맡긴 것으로 보임. 우 전 부부장이 계속 6자회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은 2004년 9월부터 5년4개월간 의장직을 맡아온 경륜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우 전 부부장을 한반도 특별대표로 임명한 것은 미국이 스티븐 보즈워스를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하고 그 아래에 성 김 대북특사를 6자회담 수석대표로 두고 있는 점을 원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중국 외교부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누가 6자회담 의장이 될지에 관해 얘기하기 어렵다며 공식 발표를 자제해 왔으나 전날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전격 방중, 6자회담 재개 문제에 관한 관심과 함께 중국 측 카운터파트가 누구인지를 놓고 혼란이 커지자 발표를 전격적으로 앞당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음.

김정일 "6자회담 재개노력 중요"(종합)(2/9)

-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8일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하려는 유관 당사국들의 성의 있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음. 김정일 위원장은 이날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면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북한의 지속된 의지를 되풀이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9일 보도했음.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북한의 일관된 입장을 강조했음.
- 왕자루이 부장은 김 위원장에게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구두친서를 전달했음. 후 주석은 친서에서 "중국의 당과 정부는 북·중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며 "전통적인 우의를 한 단계 더 심화시키고 실무적인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음. 그는 "한반도의 핵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국은 이를 위해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공동의 발전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지난해 왕 부장을 통해 김 위원장의 방중을 초청했던 후 주석은 이번에도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해 달라"고 재차 초청했음.
- 양측은 이번 면담을 통해 양국 간 우호와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음. 김 위원장은 "지난해는 신중국 성립 60주년으로 중국은 찬란한 성취를 이룩했고 국제정치와 경제생활 등 각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면서 "북한의 당과 인민 역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음. 그는 또 "북한은 중국의 조국통일과 주권 및 영토안정을 위한 각종 조치들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음. 김 위원장은 "양당이 분야별로 교류를 강화하고 서로를 본보기 삼아 양당 및 양국관계를 더욱 부단히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음.
- 면담이 끝난 뒤 김 위원장은 왕자루이 부장 일행에게 만찬을 베풀면서 공통의 관심사항과 기타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류사오밍(劉曉明) 주북 중국 대사와 북한 노동당의 장성택 행정부장,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김영일 국제부장 등이 이들 행사에 참가했다고 통신은 전했음.

中 "북핵 긴장완화..기회 포착해야"(2/9)

- 중국 외교부가 최근 북핵 정세에 긴장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기회를 잘 포착해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

핑에서 "최근 북핵정세가 완화된 것은 북핵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데 있어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음. 마 대변인은 "북핵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하며 각 당사국의 이익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규정하고 "대화·협상 및 정치·외교적 수단을 통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각 당사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정확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음.

- 그는 "중국은 유관 당사국이 함께 노력해 대화와 접촉을 계속하고 유연성을 발휘함으로써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마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유관 당사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관련 국가를 정상화하고 동북아시아의 장기적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최근 방북,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친서를 전달했다"면서 "후 주석은 한반도의 핵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음.
- 마 대변인은 "김정일 위원장도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북한의 일관된 의지를 강조하면서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하려는 유관 당사국들의 성의 있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음. 그는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북특사인 린 파스코 유엔 사무국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이날 오후 방북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파스코 특사가 이날 오전 양제츠 외교부장과 만나 한반도 정세와 공통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음.

유외교 "北 6자복귀 여전히 불투명"(2/8)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8일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여부와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음. 유 장관은 이날 오전 2010년도 재외공관장 회의 개막식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실리 추구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항해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NLL(북방한계선) 인근 수역에서 사격 실시를 감행하는 등 남북관계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음. 앞서 유 장관은 지난달 22일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구정(2월13-15일)을 전후해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유 장관은 "북한의 이러한(이중적인) 행보를 볼 때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다고 본다"며 "우리는 제재와 대화 노력을 병행해 가면서 5자간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음. 그는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도록 우리가 제안한 일괄타결(그랜드 바겐: Grand Bargain) 구상을 중심으로 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나. 미·북 관계

北, "발굴유해 가져가라"..美에 제의(2/14)

- 북한은 지난 1월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유엔사와 실무급 접촉에서 미군유해 발굴 작업 재개를 강하게 주장했던 것으로 14일 확인됐음.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북한군이 유엔사와 실무급 접촉에서 6.25전쟁 당시 북한지역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발굴 작업을 재개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며 "회담에 참석한 유엔사측과 이를 보고받은 미군들이 상당히 당혹스러워했다"고 말했음. 특히 북한군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미군 유해를 발굴해 낸 것이 있으니 와서 가져가라"고 제의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음.
- 그러나 미측은 북한의 이런 제의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나타내면서 아직 북한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음.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미군 유해발굴작업 재개를 강력히 희망한 것은 미측이 제공하는 발굴보상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군 차원에서 외화 조달을 염두에 두고 그런 제의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미국은 1996년부터 발굴작업이 중단된 2005년 5월까지 함경남도 장진호 인근과 평안북도 운산지역에서 모두 225구의 유해를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60명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음. 지금까지 미군유해 발굴작업 비용으로 북한에 모두 2천800만여 달러가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음.

美 "현 시점서 김계관 방미논의 없다"(2/13)

-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12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3월 방문설과 관련, "현 시점에서 (그런) 방문계획은 없다"고 말했음. 크롤리 차관보는 이날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김 부상이 지난해 12월 이뤄진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미국을 방문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음. 크롤리 차관보는 북·미 뉴욕채널을 통해 김 부상의 방미와 관련한 협의가 진행중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현 시점에는 없다"고 말했음.
- 그러나 크롤리 차관보가 "현 시점"이라는 전제를 달고 답변을 한만큼 김 부상의 방미 가능성은 여전히 외교가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됨. 그는 "우리는 북한이 6자회담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인정했다는 얘기는 듣고 있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이 방아쇠를 당기는 것, 즉 6자회담의 테이블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강조했음.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은 역내 안정을 불안정하게 하는 방아쇠가 아니라, 6자회담 복귀를 위해 방아쇠를 당겨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북한이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식으로 비쳐지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음.

北김계관 3월 방미..북미대화 예상(종합)(2/12)

-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3월 중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음. 12일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김 부상은 현재 진행중인 북·중 협의가 끝나고 중국측이 이를 정리해 한국·미국·일본·러시아 등 6자회담 당사국에 알려 관련국간 조율이 이뤄진 뒤인 다음달 중 미국 방문길에 오를 것으로 보임. 김 부상의 방미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지난해 12월 북한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을 띨 것으로 보이며 이로써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와 북한간 사실상 두번째 북미대화가 이뤄질 전망임. 한 소식통은 "김 부상의 방미일정이 이미 잡힌 것으로 안다"고 상황을 전했음.
- 북한측은 이미 김 부상의 방미를 강력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했으며 미국측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큰 흐름으로 볼 때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과 김 부상의 방중, 그리고 우다웨이 한반도 특별대표의 6자회담 당사국 방문, 김 부상의 방미 수순으로 6자회담 재개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북한은 김 부상의 방중을 통한 북·중 회담에서 그동안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대북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체결문제 등과 관련한 입장에 변화가 거의 없음을 확인시킨 것으로 알려졌음. 따라서 북한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김 부상이 미국을 방문해 재차 북미대화를 하더라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미국 국무부의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기자들과의 컨퍼런스콜에서 '김 부상이 중국을 방문 중인데 가까운 시일 내에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런 어떤 신호를 보기를 확실히 원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가 그런 신호를 봤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
- 이런 가운데 김계관 부상이 이끄는 북한측 6자회담 대표단의 방북 나흘째인 이날 북·중 양측은 회담 재개방안 논의를 위해 다시 접촉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북측이 이틀간의 회담을 마치고 사흘째인 전날 본국 정부의 훈령을 받은 것으로 보여 이날 회담 결과가 주목됨. 앞서 11일 김 부상은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 특별대표와 저녁 식사를 겸한 수석대표간 회담을 했음.

"美 골드버그 교체돼도 대북제재 불변"<RFA>(2/10)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을 총괄해 온 필립 골드버그 전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이 9일(미국시간) 상원의 인준표결을 통과,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담당 차관보로 확정됐음. 골드버그 전 조정관은 지난해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을 계기로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의 이행을 총괄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을 순방하고 동남아, 중동 지역을 방문하는 등 제재 이행을 위한 전방위 국제 협력을 추진해 왔음. 골드버그 전 조정관의

후임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상태나, 미 국무부는 대북 제재 이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임. 또 이날 상원은 전체회의에서 클리포드 스탠리 국방부 인사·준비담당 차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도 가결했음. 상원은 워싱턴D.C. 일원에 계속되는 폭설로 표결일자를 잡기가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외교, 국방의 요직인 골드버그와 스탠리 지명자의 인준안을 이날 우선적으로 처리했음.

美 "北, 말에 맞는 행동 뒤따라야"(2/10)

- 미국은 9일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 결과에 긍정적 입장을 표시하며 북한에 대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했음.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기자들과의 콘퍼런스콜에서 "지난 24시간 북한에서 나온 공개적인 언급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6자회담이 재개되어야 하며,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올바른 말을 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음. 크롤리 차관보는 "하지만 올바른 언급은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말 자체로만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음. 그는 "그렇기 때문에 김계관(부상)이 베이징에 있는 동안에 중국 측이 '북한이 차기 6자회담 스케줄을 중국이 잡도록 허용해야 하고,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의무 준수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해야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음. 그는 "베이징에 있는 동안 그(김계관)는 미국으로부터 들은 것과 같은 메시지를 중국 측으로부터 듣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음. 그는 이어 "북한 당국과 6자회담 참가국 파트너들 간의 교류를 우리는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음.
- 크롤리 차관보는 이번 왕자루이 부장의 방북이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미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한 현 상황을 매우 비슷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음. 이와 관련, 그는 "(베이징에 머물고 있는) 북한 대표단이 우리가 지난해 12월 전했던 것과 비슷한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받고, 이런 충고를 유념하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말했음.

클린턴 "대북 개입정책이 제재 견인"(종합)(2/8)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7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북한에 대해 개입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나마 중국, 러시아가 동의한 가운데 유엔에서 대북 제재를 채택할 수 있었다고 밝혔음. 클린턴 장관은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이라는 시사 대담프로그램에 출연, 핵야망을 갖고 있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개입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며 이같이 말했음. 클린턴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내민 손을 북한이 아직까지 잡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개입정책은 작년 한 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줬다"고 강조했음. 그는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한 아주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됐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 제재가 시행되고 있다"

고 밝혔음.

- 그는 '어느 국가가 미국에 가장 위협적이냐'는 질문에 "국가적 측면에서는 북한과 같은 핵무장한 국가나 이란이 모두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인 위협"이라면서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는 더 큰 위협이 초국가적인 비(非)국가 네트워크라고 믿고 있을 것"이라며 알-카에다 등의 위협을 지목했음. 하지만 북한을 핵으로 무장한 국가로 언급한데 대해서는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이나 질문은 없었음.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문제와 관련, 핵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확인하면서도 지난해부터 정보당국이나 국방부 등의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음을 여러 차례 사실상 인정해 왔음.

다. 중·북 관계

"中, 대북정책 근본변화 없어"<美의회>(2/14)

- 북한의 지난해 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도부는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을 바꾸지 않은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음.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업데이트한 '중국과 대량파괴무기 확산: 정책적 이슈들'이라는 보고서에서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도부가 북한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기로 결정한 것 같다"고 밝혔음. 이 보고서는 "부분적으로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중국에 대한 직접 위협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 대한 도전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이유를 분석하며 이같이 관측했음.
- 보고서는 이와 함께 "중국은 (지역) 안정을 위한 시간을 벌려고 할 수 있고, 또 미국의 강한 압박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음. 보고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방중시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검증가능한 북핵프로그램 제거를 논의했고, 나아가 북한에 '고립 심화'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선택을 제시했지만 "중국은 북한을 고립시키기보다 개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보고서는 지난해 말 이뤄진 량광례 중국 국방부장의 방북과 북한 주상성 인민보안상의 중국 방문 사실 등을 북중 간 계속되는 교류의 일례로 제시했음.
- 한편 이 보고서는 "의회 요구에 따라 제출된 정보당국 문건에 따르면 중국은 탄도미사일, 화학무기 또는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을 북한, 이란, 파키스탄에 제공한 핵심 공급국이었다"는 기존의 보고서 내용을 유지했음. 이 보고서는 중국이 파키스탄에 넘긴 핵기술이 북한에 전달됐을 수 있으며, 중국 기업체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다른 나라로의 무기 확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그동안 제기해 왔음.

○ 北 "김계관, 中과 비핵화 촉진방안 논의"(2/13)

- 북한 외무성은 13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중국을 방문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음.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김계관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우다웨이 (武大偉) 중국 정부 조선반도문제 특별대표의 초청으로 9일부터 13일까지 중국을 방문했다"고 소개했음. 그는 "방문 기간 쌍방 사이에 조(북)·중관계와 평화협정 체결, 제재 해제, 6자회담 재개 등 신뢰를 조성해 조선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문제들이 심도 있게 토의됐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논의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김 부상은 방중 기간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양제츠 외교부장 등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음. 북한 측은 이번 북·중회담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김 부상을 미국에 파견해 제2차 북미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북·중 사흘째..6자회담, 평화협정 논의(종합2보)(2/11)

- 북한과 중국은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방중 사흘째인 11일에도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하는 회담을 이어갔음.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지난 이틀간의 회담을 통해 서로 의중을 전달한 북·중 양측은 북한 대표단이 본국 훈령을 기다리는 가운데 추가로 수석과 차석 대표간 실무협의를 한 것으로 보임. 특히 이날 오후 3시20분께 북한측 6자회담 차석대표인 리 근 외무성 미국국장이 중국 외교부 소속 차량으로 북한 대표단의 숙소인 베이징(北京) 시내 주중 북한대사관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돼 리 국장이 중국측 6자회담 차석대표인 양허우란(楊厚蘭) 한반도 및 북핵문제 전권대사와 만났을 것이라고 관측됨. 아울러 김 부상도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저녁식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중국 측과 조선평화협정 체결, 6자회담 재개, 북·중 문제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음.
-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현재 베이징에 머무르고 있다"며 "김 부상은 중국 정부의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인 우다웨이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했다"고 확인했음. 마 대변인은 이어 "우 특별대표와 김 부상이 이미 회담을 열어 북·중 관계와 북핵 6자회담 및 공통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하고, 그러나 "김계관 부상의 귀국 및 다른 회담 일정 등에 대해서는 알려줄 정보가 없다"고 말했음. 이에 따라 북한 대표단은 중국측과 추가 협의 등을 거친 뒤 오는 13일 고려항공편을 이용해 귀국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 부상과 차석대표인 리 근 미국국장 일행은 9일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우다웨이 한반도 특별대표를 비롯한 중국 측 6자회담 대표단과 만찬을 겸한 회담에 이어 10일에는 중국 외교부 청사로 자리를 옮겨 회담했음. 그간 회담에서 북측

은 대북 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당위성을 중국측에 설명했으며 중국측은 이 같은 전제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음. 양측은 아울러 화폐개혁 이후 극도의 경제난에 빠진 북한 사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해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을 완화하라는 중국측 요구에 북측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북·중 양국간에 대북 경제지원과 관련해선 서로 접점을 찾을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북·중, 6자회담 재개 전제조건 논의(종합2보)(2/10)

-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중국 방문 둘째 날인 10일 북·중 양국이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을 포함한 회담 조기 재개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음. 마자오쉬(馬朝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중국 정부의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중"이라면서 "양측은 북·중관계와 북핵 6자회담 및 공통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음.
- 중국 정부가 9일 베이징에 도착한 김계관 부상의 방중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 부상과 차석대표인 리 근 외무성 미국국장 일행은 9일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우다웨이 특별대표를 비롯한 중국 측 6자회담 대표단과 만찬을 겸한 회담에 이어 10일에는 중국 외교부 청사로 자리를 옮겨 회담을 이어갔음. 김 부상을 필두로 한 북측 대표단은 9일에는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 주최 만찬 참석에 이어, 10일에는 양제츠 외교부장 면담과 6자회담 중국 측 대표단을 포함해 외교부 내의 대북라인을 집중 접촉한 것으로 보임.
- 북·중 양국은 10일 늦게까지 계속된 회담에서 그간 북한이 주장해온 대북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음. 북측은 대북 제재해제 요구와 관련해 '제재의 모자를 쓰고 협상에 나설 수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중국이 대북제재 조치인 1874호 결의를 채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P5) 지위에 있는 만큼 이 조치의 해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임. 북측은 또 정전협정을 북·중·미 평화협정으로 바꾼 후 비핵화를 실현하자는 기존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하며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측은 이에 북측이 내세우는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일단 6자회담장(場)에 들어와서 논의하자는 게 미국 측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선적인 회담 복귀를 설득한 것으로 관측됨. 중국 측은 아울러 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한편으로 해석하면 북한의 안보문제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 회담을 상설화해 기존 6자회담을 유명무실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음. 특히 중국 측은 북측이 이전보다 진전된 입장을 보여야 한다며 그간 고수해온 전제조건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북·중 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 전제조건 외에 화폐개혁 이후 어려운 북한의 경제사정과 그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매개로 한 6자회담 재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임.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북한 측 6자회담 대표단과 협의를 마친 뒤 입장을 정리해 한국·미국·일본·러시아 등 회담 참가국들과 조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왕자루이, 왜 함흥까지..>(종합)(2/9)

- 북한을 방문한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이례적으로 평양에서 먼 함흥까지 찾아간 끝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중국 신화통신은 9일 오전 평양발 중문 기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우호방문한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대표단을 만났다"며 면담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밝혔음. 반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면담 장소와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친선적인 담화'라는 분위기만 전해 묘한 대조를 보였음.
- 신화통신은 "한반도 핵 문제를 타당한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는 후 주석의 구두친서 내용을 공개하고 6자회담 당사국들의 진정성을 강조한 김 위원장 발언도 전달했지만, 중앙통신은 그 어떤 내용도 언급하지 않았음. 또 신화통신은 이번 면담에 북한의 권력 2인자로 통하는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참석했다고 밝혔지만 중앙통신은 김영일 당 국제부장과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이 배석했다고만 전했음.
-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 상당수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함흥 면담'에 대해, 왕 부장이 고집을 부리는 김 위원장을 함흥까지 따라가 애써 설득한 상황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임. 다른 한편에서는 김 위원장이 몸소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을 중국 측에 과시하려는 의도에서 '함흥 면담'이 연출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北김정일, 왕자루이 면담(종합2보)(2/9)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8일 저녁 방북중인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면담하고 만찬도 함께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새벽 보도했음. 왕 부장은 김 위원장에게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구두친서'와 대표단이 준비해온 선물을 전달했으며, 김 위원장은 이에 사의를 표시하고 후 주석에게 보내는 인사를 전한 뒤 왕 부장과 "친선적인 담화를 했다"고 통신은 소개했으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밝히지 않았음.

- 왕 부장의 이번 방북은 북측이 평화협정 논의와 대북제재 해제를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6자회담 재개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됨. 이로써 2003년 현직을 맡은 왕 부장은 2004년 1월, 2005년 2월, 2008년 1월, 2009년 1월에 이어 이번까지 모두 5차례 방북해 빠짐없이 김 위원장을 면담했음.
- 중국 신화통신은 9일 김 위원장이 왕 부장과 면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의지를 다시 내보이고 "6자회담을 재개하려는 관련 당사국들의 진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도했음. 신화통신은 또 김 위원장과 왕 부장의 면담 관련 사진을 전하면서 '함흥에서 면담이 이뤄졌다'고 사진 설명을 달았음. 중국 공산당의 대외연락부장이 '외교관례'를 깨고 평양을 떠나 김정일 위원장이 있는 지방까지 이동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앞서 북한 언론은 8일 새벽 김 위원장이 현대화 공사를 마친 함경남도 함흥시 소재 2.8비날론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 했다고 보도, 김 위원장이 함흥에 체류 중임을 알린 바 있음.
- 이날 면담에는 김영일 당 국제부장과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류사오밍(劉曉明) 주북 중국 대사가 배석했으나 북핵문제와 대미외교를 총괄하는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은 배석하지 않았음.

라. 기타

○ 泰, 北무기 운송 승무원 본국 송환(2/12)

- 태국은 12일 북한산 무기를 제3국으로 운송하다 억류된 그루지야 국적 화물기의 승무원 5명을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음. 이 승무원들은 지난해 12월 그루지야 국적 화물기를 이용, 북한산 무기 40t을 운송하다 태국 당국에 억류됐으며 1명은 벨라루스인이고 4명은 카자흐스탄 출신임. 태국 이민국 관계자는 이날 오후 "승무원들이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카자흐스탄 수도인 알마티로 향했다"고 밝혔음. 앞서 11일 태국 법무부는 승무원들을 기소하는 것은 태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 정부가 승무원들의 송환을 요청했다며 승무원들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음. 억류된 무기의 최종 목적지로는 비행경로 상에 있던 스리랑카와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이란, 수단, 미얀마, 파키스탄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행선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 "탈북 난민 美입국 4개월째 전무"<VOA>(2/10)

- 미국 정부의 '2010 회계연도'가 시작된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이 한 명도 없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10일 보도했음. 이 방송은 미국 국무부의 난민 입국현황 보고서를 인용, "미국 정부가 지난해 9월 태국에서 탈북자 1명을 수용한 이후 탈북자 입국이 넉 달째 전무한데 이런 현상은

2007년 9월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음. 방송은 이어 2006년 5월 미국이 탈북 난민을 처음 수용한 이후 거의 매달 탈북 난민이 입국했으며, 두 달 이상 탈북 난민의 입국이 끊긴 적은 없었다고 말했음. 방송은 또 "미국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미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들이 줄어서인지 더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탈북자 인권단체나 난민 전문가들은 탈북 난민의 미국 입국이 어려워지는 요인으로 "미국 당국의 까다로운 신원조회 절차, 한국의 존재, 복잡한 외교적 절차" 세 가지를 꼽고 있다고 덧붙였음. 미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 난민의 미국 입국이 끊긴 4개월간 미얀마 5천여명, 베트남 500명, 중국(이상 미국의 수교국) 30명, 이란(비수교국) 1천200여명이 미국에 들어왔다고 방송은 전했음. 지금까지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모두 93명임.

○ 北, 외국인 관광 13일 재개(종합)(2/9)

- 지난해 말 잠정 중단됐던 외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오는 13일 재개될 것으로 보임. 북한 당국이 지난해 12월 중단했던 외국인 관광을 다시 허용, 오는 13일께 올해 들어 첫 관광단이 북한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중국의 북한 관광 전문 여행사들이 9일 밝혔음. 북한 당국이 외국인 관광을 다시 허용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10일 중단 이후 2개월여 만임. 북한은 해마다 세관 업무를 중단하는 12월 중순께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2월 16일 이후까지 외국인 관광을 중단하다 2월 중순께 재개해왔음.
- 북한관광 전문인 중국 고려여행사의 사이먼 카커럴 대표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 관광객들과 함께 주말인 오는 13일 중국을 거쳐 북한을 방문해 평양과 개성, 묘향산 등을 여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보도했음. RFA는 또 "스웨덴에서 북한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코리아콘술트 여행사도 올해 들어 처음 유럽인 관광단을 이끌고 13일부터 4박5일간 북한 관광에 나선다"며 "맞춰 열리는 아이스스케이팅 대회, 공연 등 다양한 여행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음.
- 미국 일리노이주 소재 '아시아태평양여행사 역시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방북 비자를 승인받았으며 미국인들의 북한 관광을 위해 북한 당국자들과 논의 중임. 중국의 한 여행사 관계자는 "이번 관광단은 3일 일정으로 평양과 묘향산 등을 둘러보게 된다"며 "중국인들이 2천500 위안(43만 원)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낯설고 이국적인 북한을 관광할 수 있다는 데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음. 또 다른 여행사 관계자는 "화폐 개혁 이후 북한 상황이 혼란스러운 것으로 알려져 걱정했는데 예상외로 반응이 좋다"며 "중국 전역에서 북한 관광을 문의해오고 있다"고 밝혔음. 승객 감소로 지난달 27일 중단했던 선양(瀋陽)-평양 간 고려항공 운항도 이달 24일께 재개될 것으로 보임.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김국방 "미군, 2017년부터 '유연성' 요청가능성"(2/11)

-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11일 오전 국회 내 헌정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헌정회 초청 정책포럼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 "2017년께 주한미군의 복무정상화가 되면 미국의 '유연하게 운용하겠다'는 요청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음. 이는 주한미군 가족들을 위한 주거시설, 교육시설 등이 갖춰진 평택기지가 완성, 이전이 이뤄질 경우 주한미군의 '신속한 이동·배치' 요청이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여 주목됨.
- 그러나 김 장관은 "주한미군의 복무가 정상화돼 3년간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복무한다면 일부 병력이 (전략적 유연성 차원에서) 교대 병력이 되더라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음. 그는 "동시에 (주한미군이 다른 지역에 투입되더라도) 대체 전력이 들어올 것"이라며 "지난번에도 아파치헬기 부대 일부가 나가면서 F-16 전투기 부대가 오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음. 김 장관은 또한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 "전작권 전환에 따른 '지휘 이원화' 우려가 있지만, 지난 1년반 협의를 통해 하나의 작전계획, 예규를 갖도록 했다"고 밝혔음.
- 그는 "전작권 전환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지원, 국방개혁2020을 연계해 생각하는 데 이는 별도로 볼 필요가 있다"며 "주한미군의 한국 개입에 있어 중요한 것은 한미관계이며, 국방개혁은 양 위주에서 질 위주로 군을 발전시키는 계획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음. 아울러 김 장관은 북한 정세와 관련, "최근 추진한 화폐개혁 후유증으로 체제 불안정을 보이고 있지만, 비교적 통제가 되고 안정된 체제를 그런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음. 그는 또한 서해 NLL(북방한계선) 해상 포탄 사격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행위와 관련, "바로 맞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북한) 함정이 나올 경우 월등히 많은 함정을 보내 수적 우세를 달성하고, 적이 공격하면 바로 사격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 다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 김국방 "주한미군 차출 가능성 논의 중"(2/9)

-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9일 "주한미군이 (가족을 동반해) 3년간 복무하는 경우 해당 부대의 예하 소규모 부대를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운영할 가능성에 대해 한·미 간에 논의 중"이라고 말했음.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국방발전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주한미군 전력은 남북한 대치 하에서 운용되는 전력"이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밝혔음. 김 장관의 이 같

은 언급은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일부 주한미군의 역외지역 차출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이 전진배치에서 가족을 동반하는 전진주둔으로 완전히 전환되면 한국으로부터 전 세계의 우발사태 지역으로 차출할 수 있는 군병력의 풀(pool)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미 국방부의 '2010 4개년 국방검토(QDR) 보고서'와 일맥상통함.

- 주한미군사령부는 앞서 주한미군 병력을 역외지역으로 차출하더라도 2010년대 후반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음. 김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지휘체제의 변화이며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는 별도사안"이라며 "올해까지 미 한국사령부의 기본운영능력(IOC)을, 내년 말까지 우리 합참과 미국 한국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을 구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국방개혁과 관련, 그는 "국방개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현존하는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한편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가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방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한·미, 北급변사태 대응 때 역할분담 해야"(2/9)

-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때 역할을 분담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9일 오후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조선호텔에서 개최하는 국방발전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한미동맹의 현주소와 미래비전'이란 논문을 통해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라 신설되는 동맹군사협조본부(AMCC)를 바탕으로 한반도 전면전, 북한 급변사태, 지역위기사태, 국제적 위기사태 등을 전제로 지휘체계와 작전계획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사안에 따른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특히 "급변사태가 발생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군사작전이 필요하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미국은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시설을 통제하는 작업을 맡는 식으로 AMCC 공동대표 간의 역할분담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음.
- 다만,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태 발생 때는 유엔과 같은 권위 있는 국제기구와 연계한다면 한국의 부담을 덜게 되고 한·미간 지휘관계 정립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김 교수는 강조했음. 또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평화체제-북핵-한미동맹'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 결국 북핵 문제를 해결도 못하고 한미동맹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동맹-북핵-평화체제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음.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한 군비통제, 북·미 및 북·일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및 보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실제 평화협정 체결은 북핵 폐기에 관한 검증이 상당 부분 완료된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음.

나. 한·일 관계

○ 한·일 외교장관회담 오늘 개최(2/11)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이 1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졌음. 양국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는 한·일관계의 발전방향과 북핵 등 한반도 주변정세, 재일 한국인 등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 참정권 부여 문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공동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함. 회담에서는 또 양국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제3기 한일문화교류회의' 설치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음. 두 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장관 공관에서 오찬 예정임. 오카다 외상은 이어 이날 오후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정운찬 국무총리와 현인택 통일부 장관, 한·일의원연맹 간부단 등과 면담을 가진 뒤 귀국할 예정임.

다. 미·중 관계

○ "오바마, 달라이 라마 예정대로 만날 것"<백악관>(2/13)

- 미국 백악관은 12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면담을 취소하라는 중국의 요구에도 불구, 면담은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음.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와 목요일(18일) 면담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음. 기브스 대변인은 이어 "중국의 명확한 입장이 면담을 취소시키기 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만약 그들의 입장이 그런 것이라고 해도 당초 예정대로 오는 18일 면담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해 중국측 요구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음. 미국이 중국의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통상마찰 심화와 대만 무기판매 계획 발표 등으로 경색된 양국관계가 더욱 냉각될 것으로 보임.
- 앞서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만나기로 한 잘못된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음. 마자오쉬(馬朝旭) 중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중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만나는 데 대해 엄중한 항의의 뜻을 수차례 미국에 전달했다"면서 "우리는 달라이 라마의 미국 방문 허용과 미국 지도자들과의 어떤 접촉도 반대한다"고 말했음.

○ 中, 오바마에 달라이 라마 면담 취소 촉구(2/12)

- 중국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18일 백악관에서 달라이 라마와 면담키로 한 데 대해 "면담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하며 강력히 반발했음. 중국 외교부는 마자오쉬(馬朝旭) 대변인 명의로 12일 성명을 내고 "오바마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만나기로 한 잘못된 결

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음. 마 대변인은 성명에서 "중국은 미국에 오바마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만나는 데 대해 엄중한 항의의 뜻을 수차례 전달했다"면서 "우리는 달라이 라마의 미국 방문 허용과 미국 지도자들과의 어떤 접촉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말했음. 그는 "미국은 티베트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해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분인 사실을 존중하고 티베트 독립에 반대한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면담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음.

- 마 대변인은 "미국은 달라이 라마의 반중국, 국가분열행위를 위해 어떠한 장소와 편의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면서 "티베트의 안정을 훼손하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를 중단함으로써 중·미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음. 중국의 이번 성명은 백악관 대변인의 면담 발표 직후 나온 것임.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시간 11일 오바마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와 오는 18일 백악관에서 면담한다고 밝히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종교지도자이며 티베트인의 인권을 대변하는 인물인 달라이 라마와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음.

"中, 美핵항모 니미츠호 홍콩기항 허용"(2/11)

- 중국 정부가 다음주에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호의 홍콩 입항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음.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미 해군 제7함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니미츠호가 이끄는 미 해군 항모전단의 다음 주 홍콩 방문을 중국 정부가 승인했다"고 보도했음. 7함대 공보장교인 제프 데이비스 중령은 10일 니미츠호를 비롯한 항모전단의 다음주 홍콩 방문을 중국 외교부가 허가했다면서 "홍콩은 미 해군 장병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항지로 선원들은 홍콩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음. 니미츠호 전단은 17일 홍콩에 입항해 4일간 머물 예정임.
- 니미츠호의 홍콩 입항은 중국과 미국이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달라이 라마의 미국 방문계획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음. 특히 달라이 라마의 방문 일정이 17일, 18일 이틀간으로 예정돼 있어 니미츠호 항모전단의 홍콩 기항과 시점이 겹침.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니미츠호의 홍콩 방문 허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SCMP는 덧붙였음.
- 군사전문가들은 중국과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 니미츠항모 전단의 홍콩 방문을 허용한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퇴역 장성인 쉬광위(徐光裕) 중국군축통제협회 이사는 미국과 중국 간에 사전 합의 없이 중국이 니미츠호의 홍콩 입항을 허용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면담하지 않기로 하는 등 양측 간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음. 니미츠호는 1975년

임무 배치된 미국 최초의 핵추진 항공모함으로, 배수량 9만7천t급 핵추진 항모를 일컫는 '니미츠급'의 원조 항공모함임.

"美재무·中부총리 환율문제로 전화 설전"(2/10)

- 미국 재무장관과 중국 부총리가 환율문제를 놓고 전화로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고 환구시보(環球時報)가 10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미국 정치·경제전문 정보지 닐슨리서치와 대만의 연합보(聯合報)를 인용, 지난 5일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왕치산(王岐山) 중국 부총리에게 전화로 3월 말까지 위안화를 절상하지 않으면 4월 의회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음.
- 미 재부부는 매년 4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환율보고서를 발표함. 왕 부총리는 가이트너 장관의 경고에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내다 팔고 미국의 중국 수출에 대해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맞받아쳤다고 신문은 전했음. 가이트너 장관은 당초 중국을 직접 방문하려 했으나 중국의 반응이 냉담해 자칫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고 판단, 방문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짐.
- 그러나 대만의 양안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중앙통신사인 중앙사(CNA)는 닐슨리서치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함. 최근 중국에 대한 서방 언론들의 보도태도가 점점 강경해지고 있지만 사학자들의 대부분은 중국을 자극하는 행위가 중국을 더 분발하게 만들어 서방에는 손실을 주고 더 나아가 위험에 빠뜨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것임. 즉 중국이 자국민 결속을 위해 서방 언론의 보도를 과장 또는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음.

<美·中 무역분쟁 '점입가경'>(2/8)

- 최근 들어 각종 민감한 이슈로 갈등을 빚고 있는 양국간 무역 마찰은 한쪽이 먼저 실력행사에 나서면 또 다른 한쪽이 보복 조치하는 일진일퇴의 공방전 형태로 전개되고 있어 어느 선까지 비화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미국 상무부는 5일 중국산 선물상자와 장식용 리본에 대해 최고 231.4%의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음. 상무부는 그러나 중국에 비해 장식용 리본의 대미 수출물량이 훨씬 많은 대만에 대해서는 최고 4.54%의 반덤핑 잠정관세를 물리기로 해 이번 조치가 중국에 대한 보복성 성격이 짙음을 우회적으로 내비쳤음. 미국은 2007년 중국으로부터 3천270만 달러어치의 장식용 리본을 수입했으나 대만으로부터는 배 이상인 6천810만 달러어치를 수입했음.
-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이날 중국 상무부가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43.1~10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마자 나온 것임. 중국은 지난해 11월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고율의 수입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날 관세 부과 방침을 확정했음. 앞서 지난달 27일

미국은 중국산 전기담요에 대해 최고 175%의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키로 했으며 이와 별도로 중국산 시추용 강관에 대해 덤핑수출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음.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조사 착수 직후인 1일 야오젠(姚堅)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해 "이런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양국 무역관계를 위험하게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음.

- 미국과 중국간 무역 분쟁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중 압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직접 천명한 것으로 볼 때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일 환율 문제가 미국의 무역경쟁에서 '막대한 불이익'을 안겨주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국과 무역에서 더 강력하게 기존 무역규칙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중국 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음.
- 중국 관영 싱크탱크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공세는 정치적 원인이 매우 크다고 분석하면서 무역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미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음. 한편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티베트 문제, 위안화 환율 문제, 구글 사태 등 각종 민감한 이슈로 갈등을 겪는 양국 관계는 오는 17~18일로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과 달라이 라마의 면담을 계기로 최악의 갈등 형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됨.

라. 미·일 관계

"미국령 北마리아나제도, '후텐마 OK'"(2/11)

- 사이판 섬이 있는 미국령 북마리아나제도의 지사가 주일 미군 후텐마(普天間)비행장의 이전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음. 북마리아나제도의 베니그노 피티얼 지사는 전날 후텐마기지 이전지 탐색차 현지를 방문한 일본의 연립여당인 사민당과 국민신당 관계자들에게 후텐마기지 이전을 수용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했음. 하지만 이는 미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성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피티얼 지사는 "북마리아나제도의 총의로서 후텐마기지를 수용하고 싶다. 지역에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음. 이에 대해 피티얼 지사와 면담한 국민신당의 시모지 미키오(下地幹郎) 정조회장은 "정부가 용기를 갖고 미국 정부와 협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음.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군사적 문제 등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은 연방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피티얼 지사의 발언을 일축했음.

<오자와 방미 파트너는 '오바마'>(2/9)

- 일본 정계의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민주당 간사장이 미국 방문의 전제 조건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충분한 회담'을 요구했음. 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자와 간사장은 전날 저녁 기자회견에서 방미 문제와 관련, "방미단을 조직하는 것은 좋다"면서 "다

만 모처럼 미국을 방문하는 만큼 오바마 대통령과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다면 곤란하다"고 밝혔음. 오자와 간사장은 "(미국을 방문할 경우) 정책적 논의는 정부가 한다"며 "우호친선을 목적으로 하고 싶다"고 말했음.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비행장 이전과 동맹 문제 등 머리 아픈 양국 현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싶다는 의사표시임.

- 오자와 간사장은 작년 12월 600여명의 대규모 방문단을 이끌고 중국을 먼저 찾았음. 이 때문에 미국은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통해 지난달과 이달 초, 두 차례나 오자와 간사장의 방미를 요청했음. 미국 정부가 외국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이처럼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례적임. 캠벨 차관보는 5월의 골든위크(일본의 5월 1~5일 연휴)에 맞춰 오자와 간사장이 대규모 방문단을 조직해 워싱턴을 찾아주기를 희망한다고 방문 시기까지 제시했음. 5월은 일본 정부가 후텐마비행장 이전지를 결정하는 달임. 캠벨 차관보는 지난 4일 "오자와씨의 미국 방문이 성사된다면 큰 경의로 맞을 것"이라고 극진한 태도를 보였음. 또 지난달에는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우리의 교섭 상대는 일본 정부의 공식 대표이지만 오자와 간사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오자와 간사장의 '위상'을 평가했음.

마. 미·러 관계

○ 美 "'러와 군축협상지연 MD때문 아니다"(2/10)

- 미국 백악관은 9일 러시아와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의 후속 협정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유럽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 계획 때문은 아니라고 해명했음.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MD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음. 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협상장애 요인으로 MD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언급하기도 했음. 백악관의 이 같은 발언은 니콜라이 마카로프 러시아 군참모총장이 미국의 유럽 MD 구축계획이 러시아 국방에 위협이 돼 지난 12월5일로 만료된 START를 대체할 새 협정을 위한 협상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발언에 뒤이어 나왔음. 기브스 대변인은 "유럽과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계획 구상에 대한 변화가 작년 9월에 발표됐고 우리는 그동안 여러 달 동안 실질적인 협상을 진행해 왔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그는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협정 용어 선택을 둘러싼 논란이며, 그것(논란 해소)이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다른 접근을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줄 수 있다며 기존의 MD 계획에 수정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